

웅장한 역사평원 절경과 브루어리 체험까지

KTX를 통한 탁월한 접근성,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산과 멋진 역사평원, 선사시대의 유적과 근현대사 역사 투어, 재미있는 브루어리 체험. 여기에 전국 3대 불고기로 꼽히는 연양 불고기까지, 울주는 관광지로서 종합선물세트같은 다양함을 갖춘 곳이다. 그런데 이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여행에서 지명도가 크게 높지 않다. 그만큼 숨겨진 보석 같은 고장이라고 할까. 다양한 관광테마를 고르는 재미가 남다른 울주를 찾았다.

255km² 간월재 역사평원서 가을 정취 만끽
숲속에서 요가명상 힐링…천주교 역사투어도
브루어리·막걸리 양조장, 관광코스로 인기

●바람에 살랑이는 은빛 역사군락 절경

고산 평원을 가득 채운 채 바람에 살랑이는 역사 군락만큼 계절의 정취를 멋지게 전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영남알프스 간월재의 역사평원은 찾아올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동을 전해주는 곳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9개의 산이 어깨를 나란히 줄지어선 모습이 유럽 알프스를 떠올린다고 해 붙은 이름이 ‘영남 알프스’다. 일본의 ‘재팬 알프스’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그다지 창의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풍광만큼은 이름값에 어울리는 절경을 자랑한다.

전체면적 255km²에 걸쳐 신불산, 간월산, 천왕산, 재약산, 영축산, 고현산 정상부에 대규모 역사군락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인기 높은 곳이 간월산과 신불산 사이에 위치한 간월재다. 간월재 역사평원을 감상하려면 어느 코스로 가든 2시간~2시간30분 정도의 비탈진 산길을 올라가는 수고는 들어야 한다. 난이도가 높은 코스는 아니지만 경사진 길을 내내 걸어야 하기 때문에 11월 쌀쌀한 바람에도 땀이 제법 난다.

울주를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는 대곡천 계곡에 있는 반구대(盤龜臺)를 중심으로 남쪽의 대곡리 암각화와 북쪽의 천전리 암각화가 위치하고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문양 글씨가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대곡리 암각화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은 웅장한 대숲부터 화사한 단풍, 시원스레 계곡을 휘감는 대곡천 물줄기까지 경관 자체도 빼어나 숲길을 걷는 즐거움이 넘다르다.

●관광두레, 요가 체험부터 성지순례까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관광기업과 고장의 특성, 문



종합선물세트 같은 다양함을 맛볼 수 있는 울주는 불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산자락 가득히 펼쳐진 역사 군락이 정관을 이루는 간월재 역사평원, 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울주의 관광두레 와나스타의 요가 시연, 인기 체험관광 코스인 수제맥주 브루어리 트레비어의 펍에 있는 각종 생맥주 탬(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울주 | 김재범 기자



화를 담은 콘텐츠를 운영하는 관광두레는 울주에서도 최근 본격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와나스타’는 요가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이 모여 만든 관광두레다. ‘와나스타’란 이름은 ‘숲에 머물다’란 의미의 합성어다. 숲속요가명상체험이 주 상품이며 대암뎌 숲에서 수련장과 둘레길을 이용한 트레킹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상품으로는 3시간짜리 원데이 클래스 ‘울주에서 치유하다’, 여기에 숲속 맨발걷기 명상과 포니랜드 관람, 유진목장 6차산업 견학을 추가한 ‘울진에서 치유하다?’ 등이 있다.

관광두레 ‘엠마오’는 조선 말 천주교 박해의 아픈 역사를 소규모 천주교 공동체인 공소를 통해 알아보는 역사투어를 진행한다. 살티공소, 하선필공소, 상선필공소, 탑곡공소, 인보성당 등 지역 천주교 유적을 돌아보는 두 개의 도보여행 코스가 있다.

천주교 테마의 투어지만 지역민의 삶과 역사를 가이드의 조곤조곤한 설명과 함께 차분히 돌아보는 여정이어서 종교와 상관없이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가꾸어가는 웅촌면 관광두레 ‘더 씨앗’도 본격적인 사업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맥주, 막걸리 체험투어 성지

최근 울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 높은 ‘핫플’이자 지역투어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단골 코스로 들어가는 체험공간이다. 트레비어는 수제 맥주를 만드는 작은 브루어리다. 맥주의 원료부터 제조과정 등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고 공장시설 견학도 할 수 있다.

공장 옆에 직영 펍을 운영하는데 품미 진한 흑맥주(스타우트)부터 향미가 좋은 페일 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맥주를 탬에서 따라 마시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급 막걸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복순도가 양조장도 이곳 울주에 있다.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양조장 옆의 별도공간에 쇼룸과 시음장을 마련해 관광객을 맞고 있다.

울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 환경 생각하는 착한 여행으로”

세종충북지사, KTX-이음 연계 ‘착한 여행’ 운영

한국관광공사는 충청북도,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해 KTX-이음과 지역관광택시를 이용해 충청북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착한 여행’ 상품을 특가로 운영한다. ‘착한 여행’ 상품은 지역관광택시를 연계한 상품으로 개별여행이나 소규모 인원의 단체 고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30일까지 진행하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가성비 높은 국내여행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는 올 초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충북 친환경 착한여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탄소 교통수단인 KTX-이음을 이용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착한 여행’ 상품을 구성했다. 세종충북지사는 이번 ‘여행가는 달’에 맞춰 제천과 단양 상품을 운영한다.

제천여행 상품은 풍광이 수려하기로 정평이 난 의림지와 청풍호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비롯해 22일 개통한 옥순봉 출렁다리까지 한번에 돌아볼 수 있다. 1박2일 상품의 경우 올해 문을 연 리조트인 레스트리 리움에서 숙박을 한다.



최근 개통한 제천의 옥순봉 출렁다리.

단양 여행 상품은 기존의 단양택시투어를 연계해 진행한다. 단양의 대표 명소인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비롯해 단양강 잔도, 수양개빛터널 등을 돌아보는 실속있는 상품이 다.

김재범 기자

레저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15

“숏패딩에 뽀글이 레이어드 해볼까”

네파 숏패딩,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룩 연출



숏패딩으로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연출한 네파 전속모델 전지현. 사진제공 | 네파

겨울에도 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레이어드 스타일링’이 주목받고 있다. 레이어드 스타일링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데다 매치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어 트렌디한 룩을 연출하기 좋다.

네파가 선보인 숏패딩 류는 패셔너블하면서도 활동성이 뛰어나 요즘 인기몰이 중이다.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이기에 안에 다양한 아이템을 받쳐 입기 좋다.

‘에어그랩 후디다운’과 ‘에어그랩 다운자켓’은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감에 트렌디한 짧은 기장으로 나온 다운자켓이다. 소프트한 다운 원단을 적용해 따뜻하면서도 패딩 특유의 볼륨감과 가벼움을 찾았다.

‘숏푸퍼 다운 자켓’도 패딩 특유의 볼륨감을 살린 튜브형 벌기 다운으로 겨울철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기 좋아 활용도가 높다. 초경량 원단을 사용해 가볍게 입을 수 있고, 지퍼 플러와 넥 로고를 통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줘 세련돼 보인다.

함께 입기에 좋은 아이템으로는 ‘뽀글이’ 플리스를 추천.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간절기에는 단일 아우터로, 겨울철에는 레이어드 용으로 사랑 받는 아이템이다.

‘데이브 보아 플리스 자켓’은 가슴 포켓과 지퍼 부분에 배색 컬러를 적용해 기존 플리스 자켓에 비해 스타일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다양한 컬러 구성 및 배색 포인트로 취향에 따른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따뜻한 보온성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야외활동부터 일상복까지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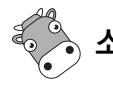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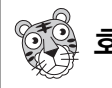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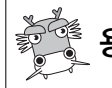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한국방송대 심포지엄 개최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한국방송통신대(총장 류수노)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로구 해화동 방송대 DMC에서 ‘코로나19 시대, 고등교육 생태계와 방송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류 총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방송대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성인교육 수요의 증가로 기회도 있다”며 “국립 원격대학으로서 풍부한 교육경험과 콘텐츠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혁신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한국방송통신대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듬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말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대체로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따라서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앞날은 밝아질 것이다. 자유분방한 날이다.	민동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은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시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뽀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무리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격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타인의 관심에 개의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0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